

사라지는 것들

홍 윤 희(시인)

고운 잎 하얀 미소
어제 같던 봄날인데
가슴속 자리 잡은
벼랑 끝에 매달려
나는 새도 찾지 않는
고목이 되었구나

별빛도 즐고 있는 이 밤
바스락대는 나뭇잎 하나
모진 풍파 견뎌가며
울고 웃던 푸른 잎이
낙엽이란 이름을 달고
밭밑에서 나뉘군다.

어제 같던 젊은 날이 그림자다. 긴 시간들이 접혀져서 얇아진 냥 하룻밤의 꿈처럼 짧기 만하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세월의 뒤안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종착역에서 전화를 걸어주는 이도 길을 데도 현저하게 줄어든 고적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잠 안 오는 밤이면 작은 소리도 그리 크게 들리는지 별의 별 생각을 다한다.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바스락거리려도 귀가 쫑긋해진다. 왜인지 나 자신만 같아 홀쭉이다. 한참 땀 푸른 잎 무성하게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으며 어떤 어려움에도 견뎌냈던 기억이 가슴에 사무친다. 나무와 맺은 인연도 다한 낙엽은 가지에서 떨어져내려 낙엽이란 이름표를 달고 기약할 수 없는 앞날을 맞아야 한다.

모두는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감으로 산다. 우선은 건강하여 자신을 다스려야 하고 남에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구실을 할 때까지를 말한다. 사라지는 것들은 그의 무를 다하고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결국 모두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연습을 하고 산다. 너도 나도 그렇게 준비하며 살고 있다.(윤 제 철)

작은 행복

신 용 우(수필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1. 좋은 운수, 2. 뜻을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다. 무엇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될까?

“욕심을 버리고 생각을 비우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맞는 말이다. 도를 닦고 수양을 쌓으면 될 것 같고 …… “공자님도 60세에 이순耳順이라” 모든 일을 들으면 마음이 통하여 거스름이 없었다고 하셨다. 늙으면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책임질 일에서 벗어나니 모든 일이 남의 일처럼 무관심해지면서 관대해지고, 보고 듣는 일들이 쉽게 이해된다. 내 나름대로 행복의 정의(定義)를 내려 보면, 지난날을 반추(反芻)하지 말고 현재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적당히 포기하고, 절제하고, 관심을 버리자.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항상 감사하자. 지금 건강하게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인가?

오늘도 나는 작은 행복을 주우러 새벽길을 나선다.

몇 달째 다리가 조금씩 아파서 청계천으로 운동을 가는데 7, 8분을 걸어 무학교로 내려간다. 계단을 반쯤 내려가면 물소리가 교각을 지나면서 울려 크게 들리니 마치 계곡에 온 듯 마음까지 시원하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고는 우후(雨後)의 청량함을 만끽하면서 운동 겸 산책을 즐긴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얼굴과 모양으로 스쳐 오고가고, 젊은이들은 다이어트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분주하다.

나도 목적지를 향해 걷는데, 간혹 아는 사람을 만나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위쪽으로 가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오른쪽 개울 속에 험다 남긴 육교다리가 보기 흉하게 서 있는가 하면 왼쪽 벽에는 분수가 있어 옷을 안 적시려면 물이 안 나올 때 빨리 뛰어야 하고 (분수는 낮에 가동함), 비우당교를 지나면 제주 해녀가 서있는 옆 벽면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건너편에 성북천이 합치고 야외 음악이나 연극을 할 수 있

게 나무로 만든 간이무대 같은데, 내려서면 바로 물에 오리들이나 물고기들이 한가로이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울 양쪽에는 소망의 벽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나 소원을 적은 글이 나 그림 타일 벽이 있고, 앞에는 제주 돌하르방이 양쪽으로 서 있어 나는 잠시 그 앞에서 기원을 한 다음 작은 다리로 개울을 건넌다. 오른쪽으로 기고 오던 개울은 여기서 왼쪽으로 바뀌고, 위로 보이는 황학교를 지나면 봄부터 지금까지 꽃이 피는 자귀나무에 봄에 피었던 꽃에는 콩꼬투리같이 생긴 열매가 한 뼉은 족히 됴직하다.

여기부터 개울은 낮게 발밑에서 흐른다. 작은 물고기, 잉어 떼, 외리들이 놀고 재수 좋은 날에는 이름 모를 큰 물새나 금붕어도 몇 마리 보인다. 영도교를 지날 때는 비둘기들이 하도 많으니 그놈들이 실례할까보아 조심스럽다. 조금 더 가면 빨래터다. 옛날에 아낙네들이 청계천에서 빨래하던 곳을 재현해 놓은 곳이고, 천안의 능수버들이 10그루 늘어져 머리에 닿는다. 거기를 돌아가면 청평화로 올라가는 징검다리 사이를 흘러내린 물이 낙차(落差)가 생기고 다시 돌이나 나무에 부딪치면서 흰 거품을 많이 내고 큰소리로 거세게 흐르는데 그것은 마치 같이 붙들고 아우성치는 것 같아 보고 있노라면 이상하게 마음속이 뿔 뚫린 것 같이 시원하다.

나는 길 보다 넓게 나무로 전을 대어 만든 곳, 여기서 운동을 한다. 심호흡을 하면 풀내음이 싱그럽고, 맞은편 담, 담쟁이 잎 사이에 아직도 몇 송이 피어 있는 능수화를 보면서 가슴을 펴서 뒤로 젖혀보고 목, 팔, 다리, 허리도 돌리고 옛날에 배운 보건체조 시늉을 내보면 한결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그리고는 뒤돌아선다.

무수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이 공간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 그 모두가 나의 일상의 작은 행복이다.

걷다가 앉았다가 여유를 즐기면서
한가히 유영하는 잉어 떼 보노라면
세상 속 고단한 일들 물속에다 흘린다

어쩌다 흰 물새가 날아오는 날이면은
행운이 올 것 같아 파래지고
오늘도 작은 행복을 욕심 가득 들고 왔다
- 「청계천」 전문